

【새로운 역사로 새겨질 도시대항 야구대회】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7월 14일에 제 90회 도시대항 야구대회에 숙원이었던 첫 출전을 하게된 시티라이트 오카야마의 응원을 하러 도쿄돔에 다녀 왔습니다.

시티라이트 오카야마는 오카야마로서는 실로 47년만에 출전한 것으로 1회전 미야자키 우메다 학원과의 경기에서는 승리의 마음을 담아 시구를 했습니다.

그날은 잔디의 아름다움에 감격하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투구연습을 했습니다만. 막상 시구식에서 「플레이 볼」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타자가 서있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빛나간 볼은 오른쪽 타자의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포수인 나카타니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니 「아닙니다. 잡았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답해주어, 이렇게 릴렉스한 분위기라면 부담도 없고 오늘은 뭔가 해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기는 시티라이트 오카야마가 2회에 선제한후 시종 리드 했습니다. 선발선수인 고토선수의 끈기있는 호투가 계속되어 어느

타이밍에 구원투수를 등원시키는지 궁금했었는데 기리야마 감독은 7회 2아웃까지 끝다가 거기서 부터 모든 피칭 스타일이 다른 히라오카 선수로 교체했습니다. 과연 상대 선수도 첫번째 타석에서는 치지못했습니다. 전체를 보는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타격면에서는 주장인 마루야마 선수가 톱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강타자인 타무라 선수, 코타케 선수는 친 순간에 「홈런이다!」라는 것을 알 정도의 홈런을 치는 등 훌륭한 타자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스탠드는 시티라이트 오카야마 관계자 여러분외, 가족과 함께 응원하러 온 전 오카야마시 부시장이었던 사사키씨 등 오카야마에 연고가 있는 분들 총 5,500명의 대 응원단이 모여 모두가 하나가되어 응원을 해, 경기동안 한번도 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결과는 4 대 3. 멋진 전국 대회 첫 승리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7 일에 열린 2 차전 일본 생명과의 경기에서 6 회까지 0 대 0 의 긴박한 전개가 계속되었지만 7 회에 맹공격을 받고 아깝게도 패배해 버렸습니다만 야구를 통해 시민이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티라이트 오카야마 연식 야구부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큰 감동을 주심에 감사합니다.